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5>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화두를 참구할 때는 오로지 한 생각으로 화두만을 참구해야 한다. 화두를 챙길 때는 신심(信心)과 분심(憤心)과 의심(疑心)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하는 것으로써 생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살 길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것이요, 죽은 말에서 깨쳤다고 착각하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해야 할까? <선가귀감> 13장에서 그 방법을 말한다.

凡本參公案上 切心做工夫 如鷄抱卵 如猫捕鼠
如飢思食 如渴思水 如兒憶母 必有透徹之期

본디 공안을 참구하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굶주린 사람이 밥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확실하게 깨칠 때를 맞게 된다.

공안(公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공안은 관청에서 시비를 판결하는 공문서라는 의미이니 요즘말로는 모든 국민들이 이의없이 따라야 할 '나라법'이다. 이 뜻을 빌려 선종에서는 역대 고승의 언행에 관한 기록을 가져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의없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 삼은 것을 공안이라고 했다. 이런 종류 기록들은 한결같이 정부에서 정식으로 포고하는 법령과 같아서 그 권위가 준엄하여 침범할 수 없다. 오로지 수행하는 사람들이 늘 따르고 의지해야 할 법으로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

이런 풍습은 당대(唐代)에 제기되고 송(宋)나라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천칠백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천칠백이라는 숫자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실려있는 일천칠백 명이 법을 전해받게 되는 특별한 인연이 된, 그들의 전법(傳法) 기연(機緣)의 숫자에서 왔다. 그러나 공안이 정확히 일천칠백 개가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쓰이는 것은 약 오백 개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중복돼 쓰이거나 참구할 가치가 적다고 한다. 선종에서 처음에는 개인에 관한 어록이 있을 뿐이었지만 뒷날 어록에 관한 책들이 많아지고 마침내 그 어록들을 편집하여 공안에 관한 책들이 완성되었다. 그 결과 <벽암록> <종용록> <무문관> <정법안장> <경덕전등록>과 <인천안목> <지월록> <속지월록> 같은 책들이 만들어졌다.

공안 가운데 대다수는 '한 자' 또는 '한 마디'로써 학인 참구용으로 제공되었는데 이것을 '화두(話頭)'라고 한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無)"라고 대답할 때, 이 '무(無)' 자가 곧 화두이다. 그러므로 공안은 화두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참선할 때 화두를 붙잡고 공부하면 화두를 참구한다고 한다. 또한 화두를 조사스님들이 학인들에게 언어로 보여주는 공안을 '화두공안'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공안은 어떤 내용을 짜 맞추어 추리하거나 일반 상식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언어들은 대개 선가의 정신으로서 말의 논리나 논리적 사고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큰스님들은 매번 공안에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학인들의 분별 의식 밖에 있는 심층을 바로 깨닫도록 촉발시켜 그들의 참성품을 직접 보게 한다.

공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화두는 깨달음을 가져오는 방편이 된다. 둘째, 화두는 학인의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이 된다. 셋째, 학인이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권위의 잣대가 된다. 넷째, 큰스님이 학인의 공부를 인가해 주는 믿음의 증표가 된다. 다섯째, 수행자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깨달음을 제시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조사의 공안은 일천칠백 개나 된다. '개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없다(狗子無佛性)'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삼 서 근(麻三斤)'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와 같은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어 따뜻한 온기를 끊임없이 지속시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화두를 챙겨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 한다는 것은 '마음먹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굶주린 이가 밥을 생각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며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듯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간절히 화두를 참구하라는 것이다. 억지로 만든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니, 참선에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확실하게 깨쳤다'는 것은 옳지 않은 소리이다."

어떤 스님이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조주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였고, <벽암록> 12칙에서 어떤 스님이 동산에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라고 물으니, 동산 스님은 "삼 서 근"이라고 하였으며, <무문관> 21칙에서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부처님입니까?"라고 물으니, 운문 스님은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하였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公案, 수행자들이 따라야 할 법
깨달음 방편 · 공부 점검 등 의미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만다라

20여 년 전에 출간됐던 <만다라>란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출간돼 얼마 되지 않아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킨 책이지요. 끝없이 방황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그려낸 것인데, 당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었지요. 이후 급기야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럼 만다라(曼荼羅)는 무슨 뜻일까요?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말로, 원뜻은 '둥근 원(圓)'을 일컫습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만다라는 '신성한 단(壇:영역)에 불보살의 모습을 둥근 원형으로 배치한 도형'의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만다라에 담긴 뜻을 더 소개해볼까요. 먼저 만다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그림입니다. 흔히 티베트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만다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다라는 수행자의 우주적 심리현상을 그린 그림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 만다라를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상태를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9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6강 <금강경> 4장에 대한 육조의 충고

범부들의 보시는 상(相)을 떠나지 않는다. 유상보시(有相布施). 그들은 "다만 신상(身相)의 단엄(端嚴)과 오욕(五欲)의 쾌락(快樂)만을 구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체면과 위세, 그리고 감각적 쾌락 등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다. 이런 보시는, 혜능의 말마따나 "과보(果報)가 다하고 나면, 다시 삼악도(三惡途)에 떨어진다."

보살들은 이와는 달리 자기만족에서가 아니라 진정 사람들의 필요와 복지를 위해 손을 내민다. "그것을 부주색보시(不住色布施)라고 한다."

혜능은 "여(如)에 응(應)한 무상심보시(無相心布施)"를 말한다. 이는 "'능히 베푼다는 마음'이 없고, '베풀어지는 물건'도 보지 않으며, '베품을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주상보시(不住相布施)이다." 이를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여(如)에 응(應)한다'란 바로 앞의 '이렇게(如是)'와 마찬가지로, 주는 손과 받는 손, 주는 물건을 분별하지 않은 빈 마음(空)의 풍경을 가리킨다.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왜냐. "보살의 베푸는 마음에 아무 기대(所希)하는 바가 없기에, 그 얻은 바 복덕이 시방 허공처럼 계산 측량할 수 없다."

보시(布施)에 대한 혜능의 새로운 해석

혜능의 구결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원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일상과 체험의 방식으로' 해석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있다. 그의 기지는 '보시'의 해석에서도 빛난다. 그에게서 보시는 '남에게 주는 외향적 활동'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재해석되었다. 통째로 번역해본다.

"일설에 의하면, 보시의 보(布)란 보(普), 즉 '널리'라는 뜻이고, 시(施)는 산(散), 즉 '흩는다'는 뜻이다. 가슴 속의 망념을 싹 쓸어 없애고, 습기와 번뇌와 사상(四相)이 완전히 끊겨, 적체(積滯)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참 보시이다. 또 이런 설도 있다. 보(布)란 보(普), 즉 '널리'라는 뜻이고 (*여기서 한 구절이 망실된 듯하다. 뒷 문장으로 보건대 "시(施)란, 귀(歸), 즉 '돌아간다'거나, 혹은 복(復), 즉 '회복한다'라는 뜻이다"가 들어 있어야 한다.) 육진경계(六塵境界)에 머물지 않고, 또 유루분별(有漏分別)도 없는 것을 말한다.

"오직 늘 청정(淸淨)으로 돌아가 있고, 만법(萬法)의 공적(空寂)함을 각성한다. 만약 이 취지를 모르면, 다만 제업(諸業)을 증장(增長)할 뿐이다. 그래서 모름지기 안으로 탐애(貪愛)를 제거하고, 밖으로 보시를 행할지니, 안팎이 이렇게 상응해야 얻는 복이 무량하다. 다른 사람이 악(惡)을 저지를 때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자성(自性)에 분별(分別)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상(相)을 떠났다'는 뜻이다. 가르침에 따라 수행(修行)함에, 마음에 나와 그 대상이라는 구분(能所)이 없으면 곧 선법(善法)이다. 수행인에 능소(能所)가 있으면 선법이 아니다. 능소의 마음이 멸하지 않으면 결코 해탈을 얻을 수 없다."

"념념(念念)이 언제나 반야지(般若智)를 행하면, 그 복(福)이 무량무변(無量無邊)하다. 여시(如是)에 따라 수행하면, 일체 인천(人天)을 감복시켜 공경 공양케 하리니, 이를 일러 복덕(福德)이라 한다. 늘 부주상보시를 행하고, 일체 생명(含生)을 널리 경배하면, 그 공덕이 가이 없고, 헤아릴 수 없다."

무주상보시와 동서남북과의 관계

동서남북 사유상하의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광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위적 구분(分別)을 위한 표지도 허여하지 않는다. 혜능은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이 불성(佛性)의 직접적 표현인 무주상보시와 닮았다고 말한다. 혜능의 말을 들어본다.

"부처는 허공(虛空)이 가(邊際)이 없고, 사량(思度)할 수 없다고 했다. 보살이 무주상보시로 얻은 공덕도 또한 허공과 같아 잴(度量) 수 없고, 가이 없다. 세계(世界) 중 큰 것이 허공보다 더한 것이 없고, 일체의 성(性) 가운데 큰 것이 불성(佛性)만한 것이 없다. 왜 그러냐. 무릇 형상(形相)이 있는 것은 '크다'는 이름을 얻을 수 없다. 허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크다는 이름을 얻었다. 일체의 여러 성(性)은 모두 한량(限量)이 있기 때문에 크다는 이름을 얻을 수 없다. 불성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이름 한다."

"이 허공 안에는 동서남북이 없다. 만일 동서남북을 본다면, 이는 또한 주상(住相)이라, 해탈(解脫)을 얻을 수 없다. 불성(佛性)에도 본래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가 없다. 만일 이 사상(四相)이 있어 그것을 보인다면, 그것은 중생(衆生)의 상(相)이지 불성(佛性)이라고 이름 할 수 없다.

췌언 혹은 사족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한량(限量), 즉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이 낡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처한 조건을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탈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불순한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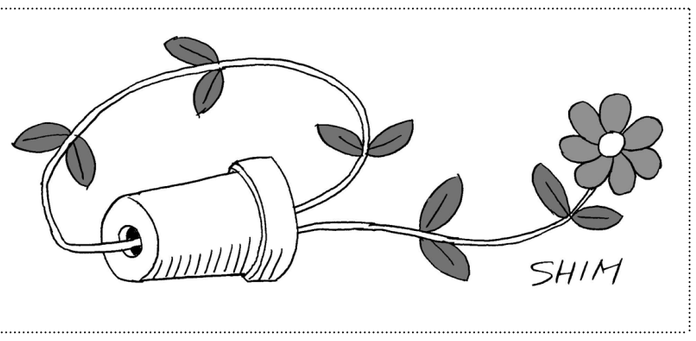
수업보다 게임에 몰두하고 엠피쓰리와 핸드폰에 열광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다. 공상 과학 소설도 그렇고, 개그콘서트도 그렇고, 퇴근 후 회사와 상사를 욕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방에서 악을 쓰는 것들, 그리고 어느 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또한, 우리가 딛고 선 '토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는 한편 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토대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앉았다가는 다시 일어선다. 우리네 인생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름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한심하고 남루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윤회(輪回)의 쳇바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붓다는 거기 길을 하나 제시한다. "네 삶의 일상을 토대(住相) 없이 살아보는 훈련을 해 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붓다는 예수의 말을 인용해 줄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너는 그 짐승들보다 나은 생명이 아니냐."

이 말에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예외적 영웅들만의 삶이라고 여기고, 직접 살기를 포기하고 만다. 그 부끄러움을 저 밖의 영웅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도배하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도 '토대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모시거나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그런 사례이다. 키움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보답에 무슨 법적 제도적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속된 말로 입 닦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게 입 닦는 사람도 적지 않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출세한 다음 갚아라" 라거나, "이웃집 아이에 비해 못났다는 소릴 듣지 않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 가도록, '조건 없는 지원'을 베풀고 있는 셈이 아닌가. 만일, 그렇지 않고 '기대하는바'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고, 그 결과는 자식은 물론, 부모까지 황폐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늘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보시, 망념 · 습기 싹 쓸어 없애기